



: HAMBURG NOCTURNE II ©MARTIN KÖSTER

"I am always surprised how much life I can observe down below. I feel the freedom and seclusion that inspires me."

"나는 항상 그림에 있는 빛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어두운 구석에서 한 줄기 빛이 나와 도시들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이와 같이 말한 Martin Köster는 도시의 야경을 아름답게 표현한다. 도시의 맥박을 느끼기 위해서 가장 높은 빌딩을 오른다. 거대한 도시를 집어삼킨 어둠과, 미약한 빛은 Martin Köster의 캔버스 안에서 다채롭게 재현된다. Martin Köster는 높은 곳에서 삶의 다양성을 관찰하고, 이 과정 속에서 자유와 은둔을 동시에 느끼며 영감을 얻는다. Martin Köster가 그리는 도시의 밤은 세계가 들어있다. 아름다운 도시를 사랑하며, 도시의 아름다운 밤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곳을 비추는 아름다운 빛을 가장 사랑한다. Martin Köster는 도시에 내려앉는 빛을 포착해 그림으로 나타낸다.

Instagram @martink_art martin-koester.com

MARTIN KÖSTER / THE CITY PAINTER

Martin Köster는 Hanover의 Leibniz University를 졸업한 후, 독일 각지에서 활발한 전시 활동을 시작했다. 밤으로 인한 어두운 건물과 밝은 빛의 대비를 물감으로 표현하는 그는 홍콩과 뉴욕, 런던, 모스크바, 파리, 함부르크 등 전 세계의 많은 도시에서 활동 중이기도 하다.



: NEW YORK FIRST SNOW ©MARTIN KÖSTER



: NEW YORKS LIGHTS IX ©MARTIN KÖSTER



: LONDON FEELINGS III ©MARTIN KÖSTER



: HAMBURG A NEW DAY III ©MARTIN KÖSTER